

# 杜思敬의 『濟生拔粹』에 수록된 鍼灸醫籍에 관한 문헌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sup>2</sup>

金正浩<sup>1</sup> · 金基郁<sup>1</sup> \* · 朴炫局<sup>2</sup>

## A Study on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corded in Dusageong(杜思敬)'s 『Jesaengbalsu(濟生拔粹)』

Kim Jung-ho<sup>1</sup> · Kim Ki-wook<sup>1</sup> \* · Park Hyun-guk<sup>2</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2</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corded in Dusageong(杜思敬)'s 『Jesaengbalsu(濟生拔粹)』 can be summarized into 3 major parts:

1. 『Gyeolgo-ungichimbeop(潔古雲岐鍼法)』 and 『Dutaesachimbeop(竇太師鍼法)』

1) 『Gyeolgo-ungichimbeop』 was edited by Dusageong of the Won dynasty, and was recorded in 『Jesaengbalsu』. Du was influenced by his teacher Heohyeong(許衡) and followed Janggyeolgo(張潔古) and his son Jangbyeok(張璧), and collected his work 『Chingu-pyeon(鍼灸篇)』 for Jang and named it 『Gyeolgo-ungichimbeop』, and took the content from the medical book of Jang and his student Wang-haejang(王海藏).

(2) 『Jesaengbalsu』's original edition exists today. The 『Gyeolgo-ungichimbeop』 listed in 『Jesaengbalsu』's index contain two collections, the first collection being 『Gyeolgo-ungichimbeop』 and the second collection being 『Dutaesachimbeop(竇太師鍼法)』

(3) Gyeolgo(潔古)、Un-gija(雲岐子)'s acupuncture methods can be seen in Un-gija 『Bomyeongjipryuyo(保命集類要)』 and Wanghaejang 『Chasananji(此事難知)』.

(4) The related acupuncture methods are 'Non-gyeong-rak-yeongsosabeop(論經絡迎隨補瀉法)', 'Gyeong-rakchwiwonbeop(經絡取原法)', 'Jeopgyeongbeop(接經法)', and 'Sang-hanyeolbyeongiabeop(傷寒熱病刺法)'

(5) Du's edition of the entire text of 'Gyeolgojajetongbeop(潔古刺諸痛法)' 『Jasimtongiehyeol(刺心痛諸穴)』 and the first half of 'Jeopgyeongbeop(接經法)' is all recorded in 『Somunbyeonggigi-uibomyeongjip(素問病機氣宜保命集)』. The existing 『Somunbyeonggigi-uibomyeongjip』 is a combination of the unfinished posthumous work of Yuwanso(劉完素), 『Gi-ui(氣宜)』 and 『Byeonggi(病機)』 with works such as Jangwonso(張元素)'s 『Bomyeongseo(保命書)』.

(6) Of the titles 『Gyeolgo-ungichimbeop』 and 『Dutaesachimbeop』, the 14~19th chapters 『Dutaesachimbeop』 should be concentrated at the end of the chapter, and the 16th chapter that Du added was put after chapter 14 『Yujujiyobu(流注指要賦)』, and chapters 20, 21 should be put in 『Gyeolgo-ungichimbeop』 after chapter 13.

2. 『Chimgyeongjeok-yeongjip(鍼經摘英集)』

(1) 『Chimgyeongjeok-yeongjip』 is a collection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ntents of medical books from the Geum and Won dynasties that Dusagyong collected and organized during the Won dynasty, which is consisted of 5 chapters : 「Guchimshik(九鍼式)」、「Jeolyangchwisuhyeolbeop(折量取腧穴法)」、「Bosabeop(補瀉法)」、「Yongchimhoheupbeop(用鍼呼吸法)」、「Chibyeongjik-ralgyeol(治病直刺訣)」.

(2) First, the contents. The nine acupuncture needles[九鍼] listed in 「Guchimshik(九鍼式)」 is the first existing document recording to systematically illustrate the 'nine classical needles' in drawing and text form which reflects the forms of the needles of the era.

Second, 「Jeolyangchwisuhyeolbeop(折量取腧穴法)」 has the same basic way of measuring points [量穴法] as Wang-yuil's 『Dong-insuhyeolchimgudo-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and the same point selection rules as 『Jeonyeongbang(全要方)』

Third, in 「Bosabeop(補瀉法)」, 『Somun(素問)』 and Janggyeolgo's 『Yeongsusosabeop(迎隨補瀉法)』 is put together.

Fourth, in 『Yongchimhoheupbeop(用鍼呼吸法)』, the cold and heat supplementation and draining [寒熱補瀉] method that combines breathing with inner and outer rotation[外·內撚] is recorded.

Fifth, 「Chi-byeongjik-ralgyeol(治病直刺訣)」 is the main part of 『Chimgyeongjeok-yeongjip(鍼經摘英集)』 listing 69 acupuncture treatments reflecting Du's scholastic ideas on aspects such as syndrome differentiation[辨證], needling method and type of needle[鍼具].

(3) The content of this book was quoted by 『Bojebang·Chimgumun(普濟方·鍼灸門)』 and when Gomu compiled 『Chimguchwiyeong』, he put the acupuncture treatments for the main indications of the disease patterns[鍼方主治病證] of this book in the related main indications of acupuncture points[腧穴主治證], which influenced books on acupuncture points there after.

3. 『Chimgyeongjeolyo(鍼經節要)』

(1) Consists of 1 volume. The original title of this book is 『Dong-insuhyeolchimgudo-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and the author is Wang-yuil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written in the 4th year of the Cheonseong(天聖) era of the Song dynasty(1026).

(2) Dusagyong selected the contents on pathology of the 12 meridians in volume one and two, the introduction and five transport points[五輸穴] in volume 5 of 『Dong-indo-gyeong(銅人圖經)』 and named it 『Chimgyeongjeolyo』. During the Won dynasty it was recorded in 『Jesaengbalsu』

**Key Words :** Dusagyong(杜思敬), Jesaengbalsu(濟生拔粹), Gyeolgo-ungichimbeop(潔古雲岐鍼法), Dutaesachimbeop(竇太師鍼法), Chimgyeongjeok-yeongjip(鍼經摘英集), Chimgyeongjeolyo(鍼經節要)

I. 序論

杜思敬(1234~1320)은 元代 汾州 西河(오늘날 山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E-mail : kkw@dongguk.ac.kr. 전화 : 054)770-2664.

西汾陽) 사람으로 자는 享亮 또한 散夫이고 號는 醉仙, 晚號는 寶善老人이다. 沁州의 長官을 지낸 杜豐의 셋째 아들로 幫府에서 忽必烈을 모셨고 許衡의 제자이다. 平陽道同知累에서 治書侍禦史로 옮기고 安西汴梁路總管, 侍禦史가 되었다. 至元 28년(1291)에 中書參知政事에 임용되고, 大德 10년(1306)에 中書左主로 부임하였다. 武宗이 즉위하자 관직을 떠나 집안에 칩거하면서 延祐 2년(1315)에 자료를 골라 분류하여 의서 19종을 편집하고 『濟生拔粹』(또한 『濟生拔粹方』)라 하였다. 延祐 7년에 86세로卒하였고 시호는 文定이다.

『中國醫籍大辭典』에는 『濟生拔粹』를 종합성 저작으로 분류하고 “元의 杜思敬이 편집하여 元·至大元年(1308)에 간행되었다. 본서는 성서 연대가 비교적 빠르고 후대에 영향을 끼친 의학 叢書이다. 작자와 금원시기 명의를 주로 집록한 명저이다. ‘節而錄之, 門分類析, 有論有方, 詳不至冗, 簡不至略’<sup>1)</sup>이라고 평가하였다.

杜思敬의 『濟生拔粹』는 모두 19종의 종합성 총서로 구성되어 있고<sup>2)</sup>, 그 가운데 침구 전문서인 『鍼經節要』, 『潔古雲岐鍼法』, 『鍼經摘英集』 3종 모두 杜思敬이 집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本書의 刊刻 연대에 관하여 일부 침구서에는 이 책이 ‘元·至大元年(1308)本’으로 적혀 있으나, 至大元年是 杜氏가 막 관직에서 물러나 의서에 관한 연구를 착

수한 시기로 아직 책을 편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濟生拔粹』가 간행되어 세상에 나돌아 다닐 수가 없었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sup>3)</sup> 杜思敬의 『濟生拔粹』에 수록된 鍼灸醫籍에 관한 문헌적인 특징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論

### 1. 『潔古雲岐鍼法』와 『寶太師鍼法』

『潔古雲岐鍼法』(『濟生拔粹』 권2)은 元代 杜思敬이 편집한 것으로 첫 번째 편명인 『經絡迎隨補瀉法』 앞에 붙어 있는 “雲岐子”를 서명으로 삼고 그가 수집한 의학총서인 『濟生拔粹』에 수록하였다<sup>4)</sup>. 杜氏는 침구서 가운데 『銅人腧穴鍼灸圖經』을 중시하여 수집한 각각의 鍼方 아래에 모두 이 책에 의거하여 穴法을 상세히 주석하였다. 『鍼經節要』(『濟生拔粹』 권1)는 五卷本 『銅人腧穴鍼灸圖經』 권1, 권5의 원문을 완전히 베꼈고, 서명에서 ‘鍼經’은 王惟一의 『銅人鍼經』을 가리키며 『靈樞經』의 古傳本인 『鍼經』과는 무관하다<sup>5)</sup>. 이 총서에서 明·正統 石刻 『銅人腧穴鍼灸圖經』 拓本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발췌본인 『鍼經節要』에는 중복하여 수록하지 않았다.

杜氏는 그의 스승인 許衡(일찍이 寶默과 학술을 교류하였고, 寶氏와 함께 ‘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杜氏는 그를 ‘許文正公’이라 함)의 영향을 받았고, 金元 의가들 가운데에는 특히 張潔古와 그의 아들 張璧을 따랐다. 따라서 『鍼灸篇』도 오로지 張氏를 위해 수집하여 ‘潔古雲岐鍼法’라 명명하였다. 내용

접수일(2009년 4월 16일), 수정일(2009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2009년 5월 15일)

- 1)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中國醫籍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1489.
- 2)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中國醫籍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1489. “本書는 모두 19종이며 元·杜思敬이 節抄한 『鍼經節要』, 『雜類名方』, 元·張璧이 편찬한 『雲岐子論經絡迎隨補瀉法』, 『雲岐子七表八裡九道脈訣論并治法』, 『雲岐子保命集論類要』, 金·寶杰이 편찬한 『寶太師流注指要賦』, 佚名으로 된 『鍼經摘英集』, 金·張元素가 편찬한 『潔古老人珍珠囊』, 『潔古家珍』, 金·李杲가 편찬한 『醫學發明』, 『脾胃論』, 『蘭室秘藏』, 元 王好古가 편찬한 『海藏老人此事難知』, 『醫壘元戎』, 『陰證略例』, 『海藏癩論萃英』, 佚名으로 된 『田氏保嬰集』, 元·朱震亨이 편찬한 『活法機要』, 元·羅天益이 편찬한 『衛生寶鑑』을 수록하고 있다.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元刊本과 日本 森立之의 影元抄本 및 1938년 上海 涵芬樓据元刻本影印이 있다.”

- 3) 黃龍祥.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98-401.  
黃幼民, 黃龍祥. 鍼經摘英集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413-416.  
未收鍼灸名著提要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25.
- 4)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 5) 黃龍祥.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8.

은 張氏와 그의 제자 王海藏의 의서에서 따왔다. 이 책은 雲岐子 혹은 張氏가 생전에 저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서목에 ‘張璧撰’이라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濟生拔粹』의 元刊本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1938년 上海涵芬樓에서 元刊本에 의거하여 영인하였다. 1955년 人民衛生出版社, 1987년 中國書店에서도 이 책 鍼灸卷의 縮印本을 출판하였다.

『濟生拔粹』總目에 수록된 『潔古雲岐鍼法』은 실제 二集을 포함하고 있으며, 上集은 『潔古雲岐鍼法』이고, 下集은 『寶太師鍼法』이다. 二集 모두 첫 번째 편의 편명을 總集名으로 삼았는데 잘못되었다. 오늘날 總目에 의거하여 上集의 서명을 취하고, 내용에 의거하여 下集의 서명으로 처리하였다. 二集 모두 아래와 같은 21편을 실었다.

- ① 「雲岐子論經絡迎隨補瀉法」、② 「經絡取原法」、③ 「王海藏拔原例」、④ 「經絡腧穴配合法」、⑤ 「辨傷寒熱甚五十九刺」、⑥ 「刺熱病汗不出」、⑦ 「刺傷寒結胸痞氣」、⑧ 「刺傷寒三陽頭痛法」、⑨ 「刺傷寒三陰腹痛法」、⑩ 「灸少陰原救脈法」、⑪ 「辨傷寒藥附鍼灸法」、⑫ 「傷寒刺期門」、⑬ 「潔古刺諸痛法」、⑭ 「刺心痛諸穴」、⑮ 「接經法」(이상 『潔古雲岐鍼法』) ⑯ 「寶太師流注指要賦」、⑰ 「離合眞邪說」、⑱ 「諸穴治證」、⑲ 「寒熱補瀉法」、⑳ 「灸法補瀉」、㉑ 「取寸法」(이상 『寶太師鍼法』).

杜思敬이 『濟生拔粹』를 편찬할 때 나이가 80을 넘어 “目力心思不逮前日”<sup>6)</sup>하였기 때문에 『潔古雲岐鍼法』, 『鍼經摘英集』을 편집하는데 편차와 분류에 있어서 종종 뒤섞이고 혼란스런 곳이 있었다<sup>7)</sup>. 예를 들어 위의 16~22편은 杜氏의 師友인 竇默(子聲)의 침구 문집으로 첫 편의 편명인 「流注指要賦」 앞에 「寶太師」가 붙어있어 서명으로 삼아 「寶太師鍼法」이라 하였다. 18편 「諸穴治證」은 杜氏가 五卷本 『銅人腧穴鍼灸圖經』과 竇氏의 「流注指要賦」에 의거하여 주해한 것으로 16편 뒤에 바로 붙여야 한다.

6) 陸心源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頤宋樓藏書志 濟生拔粹方十九卷 卷47子部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500.

7) 黃龍祥.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8.

중간에 다른 편의 원문이 가로막혀 있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마지막 두 편은 潔古의 침법으로 제 14편 앞으로 옮겨야 한다.

이상 潔古、雲岐子の 침법은 雲岐子 『保命集類要』과 王海藏 『此事難知』에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雲岐子 『醫學新說』에서 인용한 침법은 보이지 않는데, 아마 杜氏가 이 책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분석한다.

### 1) 「論經絡迎隨補瀉法」

이 편의 보사법<sup>8)</sup>은 『難經·七十二難』에 나오는데, 단지 『難經』에 기재된 ‘迎隨補瀉法’을 경의 흐름에 따라 자침하는 것이 補이고, 경을 거슬러 奪하는 것은 瀉로 이해하였다. 이 법은 나중에 ‘鍼頭迎隨經脈往來補瀉法’으로 변천하였다.

### 2) 「經絡取原法」

‘拔原之法’이라고도 한다. 그 법은 12경의 原穴을 자침하여 得氣한 후에 오래 유침하는 것이다<sup>9)</sup>. 이 법은 허실보사를 강구하지 않고 오장육부에 병이 있으면 모두 原穴을 취하는 것으로 이른바 ‘虛實皆拔之’한다.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刺傷寒三陽頭痛法」<sup>10)</sup>, 「刺傷寒三陰腹痛法」<sup>11)</sup>, 「灸少陰原救脈法」<sup>12)</sup>, 「辨傷寒藥附鍼灸法」<sup>13)</sup>, 「潔古刺諸痛法」<sup>14)</sup> 등

8)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論經絡迎隨補瀉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9)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經絡取原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10)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傷寒三陽頭痛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11)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傷寒三陰腹痛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12)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灸少陰原救脈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13)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辨傷寒藥附鍼灸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14)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潔古刺諸痛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편에 나타나는 침법은 모두 分經 변증을 기초하여 대부분 상응하는 각 경의 原穴을 취한다. ‘拔原之法’의 치료 예는 후세 수혈 전문서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明代 『鍼灸聚英』, 『鍼灸大成』, 『鍼方六集』, 清代 『循經考穴編』에 原穴 아래마다 “虛實皆拔之”<sup>15)</sup>와 같은 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로부터 유래되었다.

### 3) 「接經法」

‘接經法’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心痛을 자침하는 接經三法이다. 원문은 『靈樞·厥病』에 처음 나타나고 내용은 5종 心痛을 치료하기 위해 각기 상응하는 각 경의 原穴, 榮穴을 취한다. 心痛을 치료하는 이러한 接經法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心痛論」에 나타나고<sup>16)</sup>, 이밖에 이 책 卷下 ‘鍼法’에 기재된 오장의 原穴을 취하여 5종의 心痛을 치료하는 ‘流注鍼法’ 역시 이와 같은 ‘接經法’에 속한다.

두 번째 ‘接經法’은 약간 복잡하여 원문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즉 “假令膽病, 善潔, 面青善怒, 得弦脈. 人病心下滿(當刺膽井); 如見善潔, 面青善怒, 脈又弦, 人病身熱(當刺膽榮); 如依前色脈, 人病體重節痛(當刺膽膈); 如見善潔, 面青善怒, 脈又弦, 人病喘咳寒熱(當刺膽經); 如依前色脈, 又病逆氣而泄(當刺膽合). 餘經例皆仿此”<sup>17)</sup>

『難經·六十八難』에서 “井主心下滿, 榮主身熱, 膈主體重節痛, 經主喘咳寒熱, 合主逆氣而泄”<sup>18)</sup>이라 하였다. 윗글에서 ‘善潔, 面青善怒, 得弦脈’은 膽腑의 本症이고 ‘心下滿’증을 겸하면 膽經의 井穴을 취하

고, ‘身熱’증을 겸하면 膽經의 榮穴을 취하고, ‘體重節痛’증을 겸하면 膽經의 輸穴을 취하고, ‘喘咳寒熱’증을 겸하면 膽經의 經穴을 취하고, ‘逆氣而泄’증을 겸하면 膽經의 合穴을 취한다. 이러한 ‘接經法’은 『難經』의 五腧穴 자법을 보다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 법은 王海藏의 『此事難知』에도 나타난다.

이밖에 雲岐子 『醫學新說』에서 증풍증을 치료하는 일종의 大接經刺法을 기술하였는데, 즉 『靈樞·經脈』에 기재된 12경맥의 유주차서에 따라 차례로 12경의 井穴을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또한 ‘從陽引陰’, ‘從陰引陽’의 두 가지로 나눈다. 從陽引陰法은 足太陽經 井穴에서 시작하여 手太陽 井穴로 끝나는 것이고, 從陰引陽法은 手太陰 井穴에서 시작하여 足厥陰 井穴로 끝나는 것이다. ‘大接經’ 자법은 羅天益 『衛生寶鑑』 「中風刺法」 권7과 王海藏의 『此事難知』에 나타나고, 杜思敬은 짐작하지 않았다<sup>19)</sup>.

### 4) 「傷寒熱病刺法」

#### ① 「辨傷寒熱甚五十九刺」<sup>20)</sup>

원문은 『素問·水熱穴論』에 나타난다.

#### ② 「刺熱病汗不出」<sup>21)</sup>

手陽明의 商陽, 合谷을 취하고, 手太陽의 腕骨, 陽谷을 취하고, 足少陽의 俠谿를 취하고, 足陽明의 厲兌를 취하고, 手厥陰의 勞宮을 취한다. 이 7혈 이외에 또한 경에 따라 변증할 수 있고, 身熱은 남방火이기 때문에 12경의 榮穴을 취한다.

#### ③ 「刺傷寒結胸痞氣」<sup>22)</sup>

모두 경을 나누어 변증하여 상응하는 각 경의

p.392.

15) 高武 纂集, 中華醫學名著寶庫編輯委員會 編. 鍼灸聚英 卷1 手陽明經脈穴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九洲圖書出版社. 1999. p.693.

16)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心痛論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p.150-151.

17)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接經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92-393.

18) 秦越人 著, 難經集註 六十八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89-90.

19) 黃龍祥 主編.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00.

20)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辨傷寒熱甚五十九刺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21)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熱病汗不出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22)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傷寒結胸痞氣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井、原穴을 취하거나 증에 따라 곁하여 上腕、中腕、下腕穴을 취한다.

④ 「刺傷寒三陽頭痛法」<sup>23)</sup>、「刺傷寒三陰腹痛法」<sup>24)</sup>

모두 경을 나누어 변증하여 각 경의 원혈을 취한다. 원문은 雲岐子 『保命集類要』(『濟生拔粹』 권12)에 나타난다.

⑤ 「灸少陰原救脈法」<sup>25)</sup>、「辨傷寒藥附鍼灸法」<sup>26)</sup>

拔原의 예에 따라 足少陰 원혈인 ‘太溪’를 취한다.

⑥ 「傷寒刺期門」<sup>27)</sup>

원문은 모두 『傷寒論』의 原鍼方에서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杜氏의 『潔古雲岐鍼法』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점은 杜氏가 편집한 ‘潔古刺諸痛法’、‘刺心痛諸穴’의 전문과 ‘接經法’의 전반 부분 모두 전세본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나타나 이전 사람들은 대부분 이 책을 劉完素가 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침구문헌에 관한 책에서도 이상 3편의 원문을 劉完素의 침구학술사상으로 간주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潔古의 침법과 河間의 침법은 구별할 수가 없다. 또한 潔古가 劉完素보다 약간 늦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 張潔古가 劉完素의 침구학술을 완전히 계승하고 발휘하였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杜思敬이 착각하여 劉氏의 침방을 장씨의 이름 아래 잘못 수록한 것으로 보았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명하는 관건이 되는 문제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내력을 밝히는 것이다.

현재 이미 알려진 이 절에 관한 단서를 아래에

23)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傷寒三陽頭痛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24)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刺傷寒三陰腹痛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25)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灸少陰原救脈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26)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辨傷寒藥附鍼灸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27)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傷寒刺期門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1.

나열하여 그 내력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 河間の 제자 馬宗素의 『素問要旨論』 「序文」에서 劉氏가 저술한 것은 『素問玄機原病式』 1권, 『宣明論』 5권, 『要旨論』 3권뿐이라 하였고 『保命集』은 언급하지 않았다<sup>28)</sup>.

② 張從正의 『儒門事親』에 수록된 「劉先生三消論」篇 끝에 “三消之論, 劉河間之所作也. 因麻徵君寓作梁, 暇日訪先生後裔, 或舉教醫學者, 即其人矣. 徵君親詣其家, 求先生平昔所著遺書, 乃出『三消論』、『氣宜』、『病機』三書未傳於世者, 文多不全, 止取『三消論』……時甲辰年冬至日, 錦溪野老書續方析亭東”<sup>29)</sup>이라 적혀 있다.

여기 跋文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劉完素의 遺書가 세상에 간행되지 않은 것은 『三消論』、『氣宜』、『病機』 3책이고 또한 문자가 온전치 못한 것이 많다. 3책 가운데 『三消論』이 상대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儒門事親』에 넣어 간행하였다.

③ 王海藏은 『湯液本草』 「序文」에서 “觀潔古之說, 則知仲景之言. 觀仲景之言, 則知伊尹之意, 經皆不出神農矣. 所以先『本草』, 次『湯液』, 次『傷寒論』, 次『保命書』, 缺一不可矣”<sup>30)</sup>라 하였다.

여기에서 張潔古의 제자 王海藏은 『保命書』를 潔古의 책으로 보았는데 비교적 믿을 만하다. 또한 張氏의 아들 雲岐子에게 『保命集類要』(또한 『傷寒保命集』이라 함)가 있어 확실히 전세되었고, 서명도 ‘保命書’의 뜻을 답습하였다.

④ 전세본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제10편 이후 즉 卷中、卷下の 내용은 杜思敬이 편집하고 羅天益이 인용한 『潔古家珍』(『濟生拔粹』 권8) 등 張氏 의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한 張氏의 제자인 王海藏의 『此事難知』(『濟生拔粹』 권9)、李東垣의 『醫學發明』(『濟生拔粹』 권6)、『活法機要』(『濟生拔粹』 권17) 등에서도 나타난다. 中集에 수록된 침구 내용에서 ‘藥略’

28)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新刊圖解素問要旨論 馬序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93.

29) 張從正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儒門事親 卷十三 劉先生三消論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30)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 序文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4.

편 65종의 약물효능에 관한 내용은 『醫學啓源』、李東垣의 『東垣試效方』、王海藏의 『湯液本草』、羅天益의 『衛生寶鑑』에 실린 東垣의 『藥類法象』과 기본적으로 같다. 이 편에 붙어있는 ‘鍼法’ 내용은王海藏의 『此事難知』、李東垣의 『醫學發明』、羅天益의 『衛生寶鑑』(『濟生拔粹』 권18) 등에 많이 나타나 아울러 張氏가 논한 ‘迎隨補瀉法’과 ‘取原法’의 치료 예와 완전히 부합한다. 이와 반대로 劉完素의 책에는 침법의 내용이 극히 적게 실려 있고, 『素問要旨論』에 기재된 하나의 침법은 모두 絡穴을 原으로 삼았고, 刺法은 『素問』 遺篇인 『刺法論』의 영향을 받았다. 이 모두 潔古의 침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⑤ 전세본 『素問氣宜保命集』 제10편 이후의 문자에서 침법을 포함한 원문 대부분은 明初 樓英의 『醫學綱目』에서 ‘潔’、‘潔古’라 인용하였고 또한 인용문 가운데 雲岐子の 注文을 발견할 수 있어 樓英의 인용문이 확실히 張氏의 의서에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李時珍은 『本草綱目』 「序例」에서 “(張元素)又著『病機氣宜保命集』四卷，一名『活法機要』。後人誤作河間劉完素所著，僞撰序文詞調於卷首以附會之”<sup>31)</sup>라 하였다.

清代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李氏의 관점에 동의하여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저자를 직접 ‘張元素’로 고쳤다. 그러나 일본학자 丹波元胤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는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의 “所述方論與『宣明論』、『原病式』相出入，李時珍有何所證，以爲張元素之書。夫元素所著雖佚不可見，東垣李明之曾從受其法，則讀明之諸書，以溯據委，其理趣判然與是書不同……”<sup>32)</sup>하다고 보았다. 사실 전세본 『素問病機氣宜保命集』 32편 가운데 앞 9편만이 劉完素의 『原病式』과 특징이 비슷하고, 그 나머지 23편은 張元素의 『潔古家珍』 및 李東垣의 『活法機要』、『醫學發明』 등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다. 丹波는 이상의 여러 의서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⑦ 『素問氣宜保命集』에 실린 藥方은 劉完素 『宣明論方』과 다르지만 張潔古 혹은 潔古의 제자들 의서에 실린 의방과 같거나 비슷하다. 예를 들어 『保命集』 卷下에 기재된 ‘人參石膏湯’은 『宣明論方』 권6에 기재된 두 ‘人參石膏湯’의 組方、제량、주치 등과는 다르지만 『潔古家珍』과는 완전히 같다.

이상의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전세본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은 후인이 완성되지 않은 『氣宜』、『病機』 두 편의 劉完素 遺文과 張元素 ‘保命書’와 같은 저작을 합편하여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이라 제목을 붙였다. 최초에는 편찬한 사람의 성명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후 어떤 사람이 자서를 僞撰하여 ‘劉完素’의 撰이라 탁명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張氏의 책에서 취하였고, 침구내용도 모두 張氏와 그 제자의 의서에 나타난다. 杜思敬이 이를 ‘潔古雲岐鍼法’에서 편집한 것은 정확한 것으로 장씨의 침술을 유완소의 이름 아래에 잘못 두어서는 안 된다.

『潔古雲岐鍼法』의 내용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經絡迎隨補瀉法」은 단지 이 책 제1편의 편명이고, 그 전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이름은 『濟生拔粹』의 總目과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이라 제목이 붙은 것은 編排에 있어서 16~21편인 「寶太師鍼灸」 부분을 篇末에 붙여야 하고, 杜氏가 증보시킨 주문 제18편을 제16편 「流注指要賦」 뒤로 옮기고, 제14~15편을 제13편 뒤 『潔古雲岐鍼法』에 옮겨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읽기에 무리가 없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2. 『鍼經摘英集』

『鍼經摘英集』(『濟生拔粹』 권3)은 杜思敬이 金元 각가의 의서에서 침구부분에 관한 것을 집록하여 편성하였다. 전서는 「九鍼式」、 「折量取穴法」、 「補瀉法」、 「用鍼呼吸法」、 「治病直刺訣」 모두 5편이 실려 있다.

### 1) 「九鍼式」

31) 李時珍 編纂，劉衡如，劉山永 校注. 本草綱目(上冊) 本草綱目序例第一卷.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0.

32) 丹波元胤 著. 中國醫籍考 卷5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654.

九鍼에 관한 기재는 일찍이 『靈樞』와 『素問』에 나타나지만 전세본에는 상응하는 九鍼圖가 없다. 오늘날 『鍼經摘英集』에 실린 九鍼에는 글과 그림이 있어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圖文방식으로 ‘九鍼’을 계통적으로 그린 최초의 문헌으로 당시 침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그 중에 『內經』의 ‘大鍼’을 “燔鍼, 一名焯鍼”<sup>33)</sup>으로 고쳐 당시 火鍼의 도구로 ‘大鍼’을 많이 이용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元代 이전에는 火鍼의 도구에 鋒針·鉞鍼·員利針 등이 있어 ‘大鍼’에 국한되지 않았고 병증에 따라 침을 골라 사용하였다.

## 2) 「折量取膻穴法」

이 편은 折量取穴과 點穴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 量穴法은 王惟一 『銅人腧穴鍼灸圖經』과 기본적으로 같고, 『全嬰方』에 실린 取穴 원칙(원문은 『普濟方鍼灸門』에 나타남)을 겸하여 채용하였고 點穴法 내용은 『全嬰方』에 기재된 것과 완전히 같다<sup>34)</sup>.

## 3) 「補瀉法」

이 편の内容은 『素問』과 張潔古의 『迎隨補瀉法』을 종합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治病直刺訣」에 실린 鍼方에서의 鍼刺補瀉法은 이 ‘補瀉法’과는 부합하지 않고 下篇 ‘用鍼呼吸法’과 거의 부합한다. 이는 이 책의 내용을 다른 의서에서 베껴기 때문에 앞뒤가 상응하지 않게 되었다.

## 4) 「用鍼呼吸法」

원문에서는 “呼不過三, 吸不過五. 呼外捻鍼, 回經氣. 吸內捻鍼, 行經氣”<sup>35)</sup>라 하였고, 竇太師는 捻鍼은 “左爲外, 右爲內”、“以大指次指相合, 大指往上進, 謂之左. 大指往下退, 謂之右”<sup>36)</sup>라 하였다. 다만

竇氏는 내외의 捻鍼을 통하여 ‘使氣上行’、‘使氣下行’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고, 『摘英集』에 실린 자법은 다르다. ‘呼吸’、‘內外’에 ‘補瀉’의 개념을 부여한다면 呼吸과 함께 침을 外捻하는 것은 補가 되고, 들숨과 함께 침을 內捻하는 것은 瀉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 실린 鍼方 가운데 실제 보사의 예에서 “補”와 “瀉”는 반드시 “呼吸”을 통하여 침의 外捻과 內捻을 배합시켜 조합한 것으로 竇氏의 『寒熱補瀉』에서도 이 법칙을 채용하였다. 언급할만한 것은 『千金翼方』、『太平聖惠方』에 기재된 甄權의 『鍼經』자법도 “呼不過三 吸不過五”<sup>37)</sup>의 법칙에 부합한다<sup>38)</sup>.

## 5) 「治病直刺訣」

이는 『鍼經摘英集』의 주체 부분으로 鍼方 69首를 모두 수록하였다. 이러한 침방의 최대 특징은 配穴을 강구하고 辨証을 중시하였고, 특히 자법이 상세하다. 이는 이전 의서의 침방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동시에 일부 침방에는 병증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침을 선용하였는데, 이는 아마 『素問』遺篇인 「刺法論」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하 「治病直刺訣」에 기재된 鍼方의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 ① 刺法

“治偏正頭痛, 刺手少陽經絲竹空……次鍼手陽明經合谷二穴, 在手大指岐骨間陷中. 隨患人咳嗽一聲, 下鍼刺五分, 內捻鍼, 令病人吸氣三口. 次外捻鍼, 呼氣三口. 次又內捻鍼, 吸氣五口, 令人覺鍼下道痛如線上至頭爲度, 長呼一口氣, 出鍼”<sup>39)</sup>.

“治傷寒結胸者……以毫鍼刺左伴手少陽經支溝二穴……次鍼右伴足厥陰經行間穴……此支溝、行間穴, 下鍼至分數, 內捻鍼, 令病人五吸. 次外捻鍼, 三呼. 又次捻鍼, 五吸訖, 長呼一口氣, 出鍼”<sup>40)</sup>.

33)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九鍼式. 北京. 中國書店. 1987. p.2.

34) 朱橚 等編. 普濟方 第10冊 鍼灸門 卷411.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p.43-44.

35)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用鍼呼吸法. 北京. 中國書店. 1987. p.4.

36) 黃龍祥, 黃幼民. 竇漢卿 針經指南·氣血問答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37) 朱橚 等編. 普濟方 第10冊 鍼灸門 卷411.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48.

38) 黃龍祥, 黃幼民. 鍼經摘英集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13.

39)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4.

40)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이상 두 자법은 같고 ‘用鍼呼吸法’의 법칙과도 부합하여 같은 책에서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이 두 鍼方에서 수법조작의 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첫 번째 침방에서는 氣至를 강조하여 “令人覺鍼下一道痛如線上至頭爲度”<sup>41)</sup>라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자침에 따른 循經感傳 현상에 관한 기술이기도 하다. 이밖에 『摘英集』에는 기타 자법을 수록하였다.

“治閃著腰疼，錯出氣腰疼及本臟氣虛，以圓利鍼刺任脈氣海一穴，肥人鍼入一寸，瘦人鍼入五分，三補三瀉。令人覺臍上或臍下滿腹生痛，停鍼候二十五息，左手重按其穴，右手進鍼三息，又停鍼二十五息，依前進鍼，令人覺從外腎熱氣上入小腹滿肚，出鍼，神妙”<sup>42)</sup>。

이 鍼法은 앞의 두 예와 달리 다른 책에서 수록한 것이다. 이 자법도 마찬가지로 得氣를 강조하였고 득기를 자침의 치료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이는 『摘英集』 침방의 중요 특징으로 아래와 같이 몇몇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治偏正頭痛 …… 次鍼足少陽經風池二穴，在腦後風府穴兩旁同身寸之各二寸。鍼入七分，吸氣五口，頂上痛爲效”<sup>43)</sup>。

“治大便不通，刺任脈氣海一穴，在臍下一寸五分，用長鍼鍼入八分，令病人覺急便三五次爲度 …… 凡大便不通，勿便攻之，先刺氣海穴，令人下夾臍揉胃之經，即刺三里穴，覺腹中鳴三五次，即透矣”<sup>44)</sup>。

“治五噎，黃疸，醋心多睡，嘔吐不止 …… 次鍼足少陰經通關(通谷)의 잘못임)二穴，在中腕穴兩旁同身寸之相去各五分。用長鍼鍼入八分，左捻鍼，能進飲食。右捻鍼能和脾胃。許氏雲：此穴一鍼四效，凡下鍼後良久，先脾磨食，覺鍼動爲一效。次鍼破病根，腹中作聲，爲二效。次覺流入膀胱爲三效。然後覺氣流入入腰後腎堂間爲四效矣”<sup>45)</sup>。

“治卒心痛不可忍，刺任脈上腕一穴 …… 其穴下鍼令患人覺鍼下氣行如滾雞子入腹爲度”<sup>46)</sup>。

이상 몇몇 鍼方은 모두 자침한 후에 출현하는 상응된 침의 효과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였다. 혈에 따라 자침하여 나타나는 침의 반응이 다르고, 같은 혈이라도 여러 가지 침의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4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취혈, 수법에 대해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穴法, 침법에 정통하지 못하고 풍부한 임상경험이 없으면 이러한 경계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摘英集』에 수록된 鍼方은 임상적인 실용 가치가 높고 이것이 杜思敬이 『濟生拔粹』를 편집한 기본 원칙이다.

## ② 鍼具

『鍼經摘英集』에 수록된 鍼方에서 운용한 鍼具에는 毫鍼, 圓利鍼, 長鍼이 있다. 이 3가지 침은 마치 『素問』 遺篇인 「刺法論」에서 補瀉刺法에 쓰인 침과 같아 아마 『摘英集』 鍼方은 『素問』 遺篇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한다. 이밖에 「治病直刺訣」에 火鍼方이 실려 있고 그 鍼具는 ‘燔鍼’으로 즉 『內經』 ‘九鍼’ 가운데 ‘大鍼’에 해당한다<sup>47)</sup>。

## ③ 辨證施治

「治病直刺訣」에서 자침하여 치명하는데 병증에 따라 다른 치법을 채택할 것을 중시하였고, 혹은 다른 수혈을 골라 자침의 치료효과를 높였다.

“治卒心痛不可忍，刺任脈上腕一穴 …… 次鍼氣海二穴，足少陰湧泉二穴。無積者，刺之如食頃而已。有積者，先飲利藥，後刺之立愈。如不已，刺手厥陰包絡經間使二穴，次鍼手少陽三焦經支溝二穴，次鍼足陽明經三里二穴。如灸冷心痛，燔鍼鍼任脈巨闕穴。如五臟氣相幹心痛者，刺之無不愈。有小腸氣、疝癖、膀胱氣、

1987. p.21.

41)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4.

42)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p.26-27.

43)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5.

44)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12.

45)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13.

46)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17.

47)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九鍼式. 北京. 中國書店. 1987. p.2.

脅痛等疾，皆痛至心，直審諦，不可執一而刺之”48).

“治傷寒飲水過多，腹脹氣喘，心下痛不可忍，刺任脈中臟、氣海二穴立愈。如少腹上有氣沖者，兼刺足陽明經天樞、氣衝、三里等穴，次鍼足太陰經三陰交穴。如無此證，只刺前穴而已”49).

앞의 鍼方은 병에 따라 다른 치법을 채용한 것을 주로 논술하였고, 뒤의 침방은 兼症에 근거하여 다른 혈을 배치한 것을 논하였다. 論病、取穴、施治 모두 상세하고 합당하여 원작자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반영하였다.

杜思敬이 집록한 침구방에는 前集의 『鍼經節要』에 나타나지 않는 수혈에 대해 五卷本 『銅人腧穴鍼灸圖經』에 의거하여 그 부위와 자구법의 내용을 자세히 주해하였다. 심지어 원방에서 이미 주해한 수혈부위와 자구법에 대해 杜氏는 마찬가지로 『銅人圖經』에 의거하여 다시 주해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이상 『衛生寶鑑』 권8 「中風灸法」에 기재된 原灸方에서 수혈은 이미 주를 달아 부위를 밝혔고 杜思敬은 王惟一의 『銅人圖經』에 의거하여 原方 가운데 각 혈의 부위와 脈氣所發 등의 내용을 다시 주해하였다. 단지 『銅人圖經』에서 風市와 같이 기재되지 않은 수혈은 원서의 舊文에 따라 수록하였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杜氏는 『銅人圖經』의 침법 원문만 수록하고 구법의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原灸方을 침방으로 변경시켰다. 『衛生寶鑑』 같은 편의 다른 두灸方에 대해 杜思敬은 마찬가지로의 처리방법을 채용하였다. 아마 杜氏는 張潔古、竇太師의 침법을 중시하고 구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의하지 않은 것 같다. 杜氏는 수혈의 부위를 주해할 때에도 분명히 잘못을 범한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衛生寶鑑』 原方的 足三里穴를 ‘手三里’의 부위로 주해하였다.

『摘英集』에는 鍼方도 적지 않은데 현존하는 의서

『衛生寶鑑』	『鍼經摘英集』
“灸風中腑手足不遂等疾。百會一穴，在頂中央旋毛中陷可容豆許。髮際，是鬪兩耳前兩穴”50).	“治中風手足不遂，鍼百會穴，在前頂後一寸五分頂中央旋毛中可容豆。督脈足太陽交會於巔上。鍼入二分。聽會穴，手少陽脈氣所發，鍼入七分，留三呼，得氣即瀉”51).
“肩髃二穴，在肩端兩骨間陷者宛宛中，舉臂取之”52).	“肩髃穴，在肩端兩骨間陷中宛宛中舉臂取之。手陽明蹻脈之會”53).
“曲池二穴，在肘外輔屈肘曲骨中，以手拱胸取之，橫紋頭陷中是”54).	“曲池穴，在肘外輔骨屈肘曲骨之中，以手拱胸取之。鍼入七分。三里穴，在曲池下二寸，按手肉起兌肉之端。鍼入三分。懸鍾穴，在外踝上三寸動脈中，足三陽之大絡。鍼入六分”55).
“風市二穴，在膝外兩筋間，平立舒下手著腿，當中指頭盡陷者宛宛中。足三里二穴，在膝下三寸，脂外廉兩筋間。絕骨二穴，一名懸鍾，在足外踝上三寸動脈中。凡覺手足麻痺或疼痛，良久乃已，此將中腑之候。直灸此七穴，病在左則灸右，病在右則灸左。如因循失灸，手足以差者，秋覺有此候春灸春覺有此候者秋灸，以取風氣盡，輕安爲度”56).	風市穴，在腿外兩筋間，正身舒下兩手著腿，當中指頭陷中。其七穴，左治右，右治左，以取盡風氣，輕安爲度57).

표 1. 『鍼經摘英集』과 『衛生寶鑑』의 수혈주치 비교

48)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p.17-18.

49)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22.

50)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卷8 中風灸法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51)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7.

에서 완전히 대등한 원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 중에 일부 침방은 杜氏가 현재 이미 실전된 침구문헌을 인용한 것이 있고, 보다 많은 것은 杜氏가 다른 의서 혹은 같은 의서에서 여러 개의 鍼方 혹은 灸方을 합하여 한 개의 침방을 편성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治忽然氣滯，腰疼不可俯仰，刺足太陽絡神關二穴……次鍼足厥陰經行間二穴。今附：久虛人腰痛，刺而復發者，腰重不能舉體，刺足太陽委中二穴，在膕中央約紋中動脈，取經血而愈”<sup>58)</sup>.

“治男子臟氣虛憊，眞氣不足，一切氣疾久不搓，不思飲食，全無氣力，燔鍼任脈氣海一穴，鍼入五分，可灸百壯。次以毫鍼鍼足陽明經三里二穴”<sup>59)</sup>.

이상 첫 번째 鍼方에서 [今附] 이하의 문자는 『銅人圖經』 특유한 내용이다<sup>60)</sup>. 이른바 [今附] 는 王惟一이 『銅人圖經』을 편찬할 때에 붙인 것으로 이 방은 두 방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침방에서 취한 ‘氣海’혈은 완전히 『銅人圖經』 원문을 수록하였고 다음으로 취한 ‘足三里’혈은 다른 방에서 초록하였다.

杜思敬이 집록한 3부의 침구서 가운데 『鍼經節要』은 五卷本 『銅人圖經』의 발췌본이고, 다른 2부의 침구서 가운데 수혈은 『銅人圖經』注解에 근거한 것으로, 杜氏가 北宋 관찬 침구서인 『銅人圖經』을

배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鍼經摘英集』은 杜思敬이 여러 침구문헌에서 집록하고 개편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일부 침방은 수혈서에서 직접 나온 것이지 方書는 아니다. 鍼方에서 刺灸法의 내용은 대부분 『銅人圖經』에 의거하여 초록하였지 原方의 옛 모습은 아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普濟方』 「鍼灸門」에서 인용하였고, 그 후 明代 高武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에 또한 『摘英集』에서 다수 침방의 주치병증을 상응하는 수혈 주치증에 귀입시켰고 명대 이후 수혈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高氏가 관련된 조문을 처리할 때에 오류를 범한 곳이 적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鍼經節要』

1권이고 元·杜思敬의 節錄本이다. 이 책에 관하여 『中醫大辭典』에서 “침구저작으로 1권이고 편찬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다. 대략 금원시기에 성서되었고 훗날 元代 저명한 의학총서인 『濟生拔粹』에 수록되었다. 본서는 『鍼經』(후세 전본인 『靈樞』)에서 12경맥의 五腧穴 유주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발췌시켜 만들었다……”<sup>61)</sup>고 하였다. 실은 이 책의 원명은 『銅人腧穴鍼灸圖經』(또한 『天聖鍼經』, 『銅人鍼經』이라 함)이고 작자는 北宋 의관인 王惟一이며 宋·天聖 4년(1026)에 성서되었다<sup>62)</sup>. 杜思敬은 五卷本の 『銅人圖經』에서 권1, 권2에 실린 12경 병후 및 권5의 총론, 오수혈의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합편하여 『鍼經節要』라 제목을 붙였다<sup>63)</sup>. 여기에서 『鍼經』은 『銅人鍼經』을 말하며 『靈樞經』과는 무관하다. 유감스런 점은 근년에 출판된 것을 포함하여 각종 참고 서적에서 『鍼經節要』에 대해 여전히 『中醫大

52)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卷8 中風灸法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53)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7.  
54)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卷8 中風灸法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55)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7.  
56)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卷8 中風灸法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57)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8.  
58)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p.13-14.  
59)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治病直刺訣. 北京, 中國書店. 1987. p.18.  
60) 朱櫨 等編. 普濟方 第10冊 鍼灸門 卷421.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p.397-401.

61) 李經緯, 鄧鐵濤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9.  
62) 金基郁, 朴炫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침구 문헌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4). p.42.  
63) 黃龍祥. 未收鍼灸名著提要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205.

辭典』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 III. 結 論

논자는 본문을 통하여 元代 杜思敬의 『濟生拔粹』에 수록된 침구 전문서적에 관한 문헌적인 특징을 요약하기로 한다.

#### 1. 『潔古雲岐鍼法』와 『寶太師鍼法』

1) 『潔古雲岐鍼法』은 元代 杜思敬이 편집하였고 『濟生拔粹』에 수록되었다. 杜氏는 그의 스승인 許衡의 영향을 받아 張潔古와 그의 아들 張璧을 따랐다. 자신의 저작인 『鍼灸篇』을 張氏를 위해 수집하여 『潔古雲岐鍼法』라 명명하였고, 내용은 張氏와 제자인 王海藏의 의서에서 따왔다.

2) 『濟生拔粹』의 元刊本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 『濟生拔粹』總目에 수록된 『潔古雲岐鍼法』은 二集으로 上集은 『潔古雲岐鍼法』이고 下集은 『寶太師鍼法』이다.

3) 潔古、雲岐子の 침법은 雲岐子 『保命集類要』과 王海藏 『此事難知』에 많이 나타난다.

4) 침법으로는 「論經絡迎隨補瀉法」、「經絡取原法」、「接經法」、「傷寒熱病刺法」이 있다.

5) 杜氏가 편집한 「潔古刺諸痛法」、「刺心痛諸穴」의 전문과 「接經法」의 前半 부분 모두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 기재되어 있다. 전세본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은 후인이 완성되지 않은 『氣宜』、『病機』 두 편의 劉完素 遺文과 張元素 『保命書』를 합편한 것이다.

6)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은 編排에 있어서 제14~19편인 「寶太師鍼灸」부분을 篇末에 붙여야 하고, 杜氏가 증보시킨 주문 제16편을 제14편 「流注指要賦」 뒤로 옮겨야 하며, 제20, 21편을 제13편 뒤 『潔古雲岐鍼法』에 옮겨 놓아야 한다.

#### 2. 『鍼經摘英集』

1) 『鍼經摘英集』은 元代 杜思敬이 金元 의서에서 침구부분을 집록하여 편성한 것으로 全書는 「九鍼

式」、「折量取腧穴法」、「補瀉法」、「用鍼呼吸法」、「治病直刺訣」5편이다.

2) 첫째 「九鍼式」편에 실린 九鍼은 글과 그림이 있어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九鍼」을 계통적으로 그린 최초의 문헌으로 당시 침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折量取腧穴法」편에는 王惟一 『銅人腧穴鍼灸圖經』과 기본적으로 같은 量穴法과 『全嬰方』에 실린 取穴 원칙과 같은 點穴法을 기재하고 있다.

셋째 「補瀉法」편에는 『素問』과 張潔古의 『迎隨補瀉法』을 종합하였다.

넷째 「用鍼呼吸法」편에는 呼吸과 침의 外·內撚을 배합한 「寒熱補瀉」의 법칙을 채용하였다.

다섯째 「治病直刺訣」편은 『鍼經摘英集』의 주체 부분으로 鍼方 69首를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鍼方의 刺法、鍼具、辨證施治 등에 따른 杜氏의 학술사상이 나타나 있다.

3) 대부분 『普濟方·鍼灸門』에서 인용하였고, 明代 高武가 『鍼灸聚英』을 편찬할 때에 本書의 鍼方主治病證을 상응하는 腧穴主治證에 귀입시켜 이후 腧穴書에 큰 영향을 끼쳤다.

#### 3. 『鍼經節要』

1) 全書는 1권이며 原名은 『銅人腧穴鍼灸圖經』이고, 작자는 北宋 王惟一로 宋·天聖 4년(1026)에 성서되었다.

2) 杜思敬은 五卷本の 『銅人圖經』에서 권1、권2에 실린 12경 병후 및 권5의 총론、오수혈의 내용을 발췌 합편하여 『鍼經節要』라 제목을 붙였고, 이후 元代 『濟生拔粹』에 수록되었다.

### 參 考 文 獻

1. 金基郁, 朴炫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침구 문헌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8. 21(4). p.42.
2. 張從正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儒門事親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 p.157.
3.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9.
  4.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素問病機氣宜保命集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p.150-151.
  5.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新刊圖解素問要旨論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6. p.193.
  6. 王好古 著. 盛增秀 主編. 湯液本草 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4.
  7. 陸心源 著.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碩宋樓藏書志 中國基本古籍庫. 北京. 黃山書社. 2004. p.500.
  8. 中國醫籍大辭典 編纂委員會 編. 中國醫籍大辭典 (下冊). 上海. 上海科技出版社. 2002. p.1489.
  9. 高武 纂集. 中華醫學名著寶庫編輯委員會 編. 鍼灸聚英.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九洲圖書出版社. 1999. p.693.
  10. 李時珍 編纂. 劉衡如, 劉山永 校注. 本草綱目 (上冊).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10.
  11. 杜思敬 輯注. 黃龍祥, 黃幼民 校注. 潔古雲岐鍼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0, 391, 392. pp.392-393.
  12. 黃龍祥. 潔古雲岐鍼法、寶太師鍼法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98, 400. pp.398-401.
  13. 黃幼民, 黃龍祥. 鍼經摘英集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13, pp.413-416.
  14. 黃龍祥. 未收鍼灸名著提要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1025.
  15. 李經緯, 鄧鐵濤 主編. 中醫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69.
  16. 杜思敬 輯注. 鍼經摘英集. 北京. 中國書店. 1987. p.2, 4, 5, 7, 8, 12, 13, 17, 18, 21, 22. pp.13-14, 17-18, 26-27.
  17. 丹波元胤 著. 中國醫籍考 卷5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654.
  18. 朱橚 等編. 普濟方 第10冊 鍼灸門.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p.48. pp.43-44. pp.397-401.
  19. 秦越人 著. 難經集註.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89-90.

